

완전한 사랑

작성일 : 2009. 11. 9 (월) 새벽 3:44

작성자 : 정예인 목사 (대전 대명 교회)

[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택하시면서 까지
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진정 감사드린다고 기도했습
니다.

하지만 저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고
외면하고 살아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.
그 사랑의 근본을 깨닫고 살게 해 달라고
기도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.]

이 글을 잘 받아 적어 모두가 나의 사랑을 깨닫기
바란다.

나의 사랑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.
너희를 위해 죽음을 내건 사랑이다.
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택한 사랑이다.
나의 사랑, 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.
너희 영혼까지 사랑한 사랑이다.
영과 영끼리의 사랑이다.
영과 통하여 만나는 사랑이다.
천국을 향하는 유일한 통로이다.
내 사랑, 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.
너희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이다.
사랑해서 모든 죄 용서하는 사랑이다.
사랑해서 부르고 또 부르는 사랑이다.
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,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사
랑이다.
너희 모두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랑이다.
그동안 혼자만 너희를 사랑한 짝사랑이다.
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할 때 감격하는 사랑이다.
눈물로 고백하며 화답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
사랑이다.
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.
내 사랑은 영원까지 함께 하는 사랑이다.
생명 위해 몸부림치는 사랑이다.
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 덮어주고 이해하는 사랑이
다.
말이 필요 없는 사랑이다 내 사랑은…….

나의 사랑, 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사랑이
다.
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버릴 수 없는 사랑이다.

내 몸을 내어주고 산 사랑이다.

물과 피 쏟으며 사랑한 사랑이다.

세상의 타락된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이다.

사랑 때문에 참고 견디는 사랑이다.

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며 끝까지 기다려 주는 사
랑이다.

그 마음의 중심 보고 사랑하는 사랑이다.

나를 부르고 찾는 자에게는 언제든 달려가는 사랑
이다.

사랑한다는 말 한 마디에 감격해하고 눈물짓는 사
랑이다.

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.

더 말이 필요 없는 100%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이
다.

너희도 나와 같이 완전한 사랑을 하자.

우리 더 이상 사랑 때문에

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 하지 말고

영원한 사랑하며 가자구나.

사랑한다. 섭리의 신부들아.

사랑한다. 내 사랑 영원히 기억하며 살기 바란다.

사랑한다. 진정으로…….

(이어서 시로 주셨습니다.)

<완전한 사랑>

완전한 사랑

그 사랑은

나의 사랑.

모두 완전한 사랑을 하자.

모자라지 않는 사랑

더 보탬 것도 없는 사랑

완전한 사랑을 할 때

너와 나 절대 멀어지지 않는다.

사랑 때문에 애태우지 않는다.

완전해야

완전한 사랑할 수 있다.

모두 완전한 신부되어

나에게로 나오라.

내가 기다린다.

나의 신부들을

사랑으로 기다린다.

사랑받기 원하고
사랑하기 원하는
너의 신랑이로다.

너와 나
완전한 사랑하자.
영원한 사랑하자.

(“이 때 섭리 모두가 나의 사랑의 근본을 깨닫고
완전한 사랑을 하길 바란다.”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)